

'DJ 위독' 고향 신안군 하의도 표정

生家 방문객 북적... 애타는 '쾌유 기원'

하루 100여명 찾아 방명록에 "건강하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신안군 하의도 생가(生家)에는 쾌유를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관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후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100여명.

지난달 20일 이전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20명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후 생가 방문객이 5배 가량 늘었다.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생가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1천300명에 이른다.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김 전 대통

령의 쾌유를 바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방문객 한성수(52·서울시 도봉구)씨는 "건강하세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권승현(12·경기도 광택사)군은 "대통령 할아버지, 힘내세요"라며 쾌유를 밟았다.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도 있었다. 오세경(43·광주시 북구)씨는 "민주주의 선봉, 그 정신 영원히. 훌륭한 업적 감사합니다"라고 썼고, 부산에서 온 김한성(45)

씨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내내 건강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 전 대통령 생가 관리실 직원

성현숙(여·42)씨는 "최근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며 미루에서 큰 절을 올리

고 간 사람들이 많다"며 "방문객 대

다수가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일대

기회 잘 아는 분들이다. 모두가 하

나같이 쾌유를 빌며 떠난다"고 말

했다. /신안=이종행기자 golee@



기념식수 나무 '시름시름' 고사위기

모교 하의초에 4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심어

'나무도 DJ와 운명을 함께 하려는 것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안군 하의도의 모교인 하의초등학교에 기념식수한 나무가 시름시름 않고 있다.

10일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이희호 여사와 함께 모교인 하의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정문 옆 정원에 높이 4m, 지름 40cm

의 은목서(사진·銀木犀)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나도록 잎은 자라지 않고 양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다. 특히 새로 푸른 잎 일부는 누렇게 말라가고 있으며 줄기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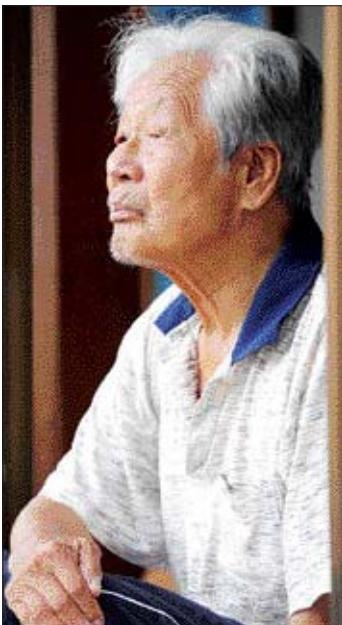
는 딱딱한 등껍질이 생겨 벗겨지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계한 전남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사계절 잎이 파란 상록수인

은목서는 이식이 잘되고 자생력이 강해 관상용이나 기념식수로 사용된다"며 "이식과 관리가 잘 이뤄졌을 텐데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올해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양상하다면 내년에는 잎이 나거나 꽃이 피지 않고 고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 학교를 다니다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목포북교초교로 전학했다.

/신안=이종행 기자 golee@



“아직 할 일 많아... 털고 일어나야지”

초등학교 동창·친구 박홍수 할아버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은 사람인데, 몸이 성해야지. 걱정스럽구만."

10일 신안군 하의도 하의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박홍수(사진·87) 할아버지의 낮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백발이 무성한 박씨는 자신의 집 마루에 걸터앉아 집에서 직선거리로 20여步 떨어진 하의초등학교를 바라봤다. 박 할아버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다.

"지난 4월 24일 고향을 찾았을 때 잠깐 봤는데, 건강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김 전 대통령과 심 수년 만에 만나 마을 사람들하고 사진도

쳤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몸이 성치 않다니 무슨 소리여."

박 할아버지는 오랜 벗의 건강을 걱정하며 옛일을 회상했다. "12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땐 나

이가 꽤 차서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 아마 그 친구(김 전 대통

령)도 나랑 동갑이었던 것으로 기

억해. 별 일 아닌 일로 싸우기도 많

이 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친구였는

데."

박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때 '연관장'을 돌렸던 일을 어제 일처럼 뚜렷이 기억하며 말문을 이어

갔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작은 실수라도 하면 학생들을 무조건 퇴학시켰어. 이건 아니다 싶었지.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 연관장을 돌렸어. '교장선생님을 몰아내자'라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야. 근데, '일일천하'에 그치고 말았어. 그래도 앞에서 아무

지게 말한 사람이 그 친구였던 것

으로 기억해."

박 할아버지는 김 전 대통령을 당

차고 아무진 친구로 기억했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똑심 있는

친구로 회상했다. 박 할아버지는 김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학을 가면서 잠시 연락이 끊겼다.

그러나 그와의 추억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래도 고향이라고

/신안=이종행기자 golee@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회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걸어온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백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E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무진로~운남~첨단지구

임방울대로 전구간 개통



무진로와 운남지구를 연결하는 1.22km의 6~10차로의 도로가 11일 개통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운남택지지구 내 개설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천630억원이 투입된 무진로~첨단지구(총연장 6.8km, 폭 60m)간 '임방울대로' 전 구간이 완성됐다.

특히, 이번 개통구간 내 동영정천을 횡단하는 운남대교는 연장445m, 폭 35.2m(6차로)의 규모로, 주탑 높이가 42m에 달하며 무등산 입석대 주상절리를 형상화해 광주의 또 하나의 불거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4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 공사 현장에서 박광태 시장, 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수완·운남지구와 무진로가 연결돼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하남산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완택지 입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5시 49분 해진 19시 26분 달밤 21시 45분 달점 10시 32분

풍랑 주의보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해남	장흥	고흥	순광	영광	진도	전주	전남	원주	목포	제주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4/29°C	24/27°C	24/26°C	23/26°C	23/28°C	24/26°C	23/26°C	24/26°C	23/29°C	23/29°C	23/26°C	23/29°C	23/28°C	23/25°C	23/25°C	23/25°C
15~2.5m	2.0~4.0m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단 면비단 남해 서부 일비단 남동~남 면비단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목포 05:11 10:20 22:37 여수 12:03 05:39 17:52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12(수) 24/32 24/32 13(목) 23/33 23/33 14(금) 23/33 23/33 15(토) 23/33 23/33 16(일) 22/33 22/33 17(월)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온라인날씨 : <http://www.kwaj.net> / 패밀리 <http://www.kwaj.net> / 모바일 605-1114 / 디아일 605-1115

광주·전남 강풍 해일도

150mm 폭우

광주·전남 강풍 해일도

11~12일 광주·전남지역은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비롯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은 제 8호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이번 비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10일 예보했다.

전남에서는 전남자연과학고가 만든 '설사를 친환경기업'이 제 제제빵으로 5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전남자연과학고가 만든 '설사를 친환경기업'이 제 제제빵으로 5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서해안 특산물인 낙지 유통에 뛰어든 신안 암해고 '섬들이 갯벌나지'도 창업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올해 등록한 영광 병설고 '법성 물학교기업'도 지역 특산물인 굴비와 모싯잎송편, 풍천장어 등을 학생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해 연 5천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11일 오후에 해남과 완도 등 전남지역 8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오후 늦게 목포와 완도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면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유태파이트, 일산 수크리에 염화-염화 세비 케이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흐릿증, 어망증
- 첫발 피부증 등에 적합한 비스嘲臭(기미), 주근깨 및 편두통, 인후증후, 비출혈, 바비
- 말초혈관